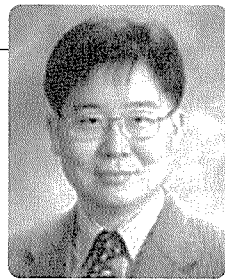


# 국제 원유시장의 동아시아 프리미엄 논의 현황과 의미



이 준 범

한국석유공사 전략정보팀 / 박사

우리 경제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경제권은 국제석유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다. 한국, 일본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경제권은 일일 약 1,270만배럴의 석유를 소비하여, 전세계 석유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일일 세계 석유교역의 22%인 967만배럴을 수입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석유소비 및 교역은 미국 및 유럽에 이어 세계 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유국에게는 세계 3대 석유시장 중의 하나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국제석유 교역에서 동아시아의 위상과 관련하여, 석유학계에서는 이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가격 조건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원유가 동아시아와 유럽 혹은 미국지역

으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 판매가격이 여타 지역가격보다 더 높다는 의견들이 있다. 즉, 동아시아 원유가격에 소위 '동아시아 프리미엄(East Asia Premium)'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일본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국제석유시장의 구조를 연구하는 미국의 석유경제학자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도입 원유가격이 여타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이론적 설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하나의 중요한 연구 경향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들어 일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일부 일본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미국 학계와 일본에서 논의되어 온 동아시아 프리미엄 연구를 살펴보면,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석유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현재 국내외로부터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를 요구받고 있다. 동아시아 프리미엄 문제는 이런 도전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경제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여타 국가들보다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석유 다소비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아시아 프리미엄과 그 해결 방법이 우리가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 글에서는 국내 석유관련 당사자들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해외에서 진행 중인 동아시아 프리미엄 논의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 세계석유시장은 거대한 水槽와 같은가?

석유경제학자들 사이에는 국제석유시장, 특히 국제원유시장은 하나의 큰 바다와 같다는 비유를 사용한다. 미국 MIT대학의 모리스 애델만(Morris Adelman) 교수같은 석학은 일찍이 1984년에 “세계 대양처럼 세계석유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水槽(one, great pool)와 같다”고 말하였다. 이는 큰 바다가 무수히 많은 강들이 흘러들어 이뤄지듯이, 세계석유시장은 많은 산유국들의 석유수출에 의해 이뤄지며, 이것은 큰 수조와 같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세계 석유시장이 지역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기존의 시각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애델만과 같은 석유경제학의 대가가 주장함으로써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 석유가 세계 경제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채택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석유시장은 공급원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먼저, 미국 시장은 미국 내의 생산으로 충당되고, 해외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국제석유수급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유럽시장은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개발해 놓은 중동산 원유와 일부 미국산 원유가 공급되었으며, 아시아지역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이란, 사우디, 쿠웨이트와 같은 중동산 원유가 주로 공급되었다. 이는 주요 석유 생산지와 소비지가 철저히 지역적으로 연결되어, 특정지역 원유가 기존 소비지 이외에는 거의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아델만과 같은 ‘수조론자’들은 ’70년대 1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중동, 중남미, 미국 및 동남아시아와 같은 기존의 석유공급지 이외, 북아프리카와 북해에서 대규모 석유가 생산되고, 중국이 모택동 사후 경제개혁 자금 마련을 위해 일본 등 아시아에 원유를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소련도 석유수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세계석유시장은 기존의 구조와는 다른 큰 수조와 같다는 주장을 폈다. ‘수조론자’들은 이런 구조 하에서는 원유의 지역간 이동이 전혀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리적으로 장거리인 경우, 적절한 수송비 상의 차이만 보상된다면, 석유 교역은 자유롭다는 것이다. 즉, 장거리 원유 교역이 활발히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지역간 가격 차이는 수송비 차이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둘째, ‘수조론자’들에 따라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아시아 프리미엄과 그 해결 방법이 우리가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면, 국제유가는 지역간 큰 차이가 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유가는 특정지역의 석유수급 조건보다 전세계적인 석유수급 조건에 의해 움직이며, 지역간 유가 변동은 다소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에 근거하여, '수조론자' 들은 세계경제가 자유화 및 개방이 되면, 단일의 국제석유시장이 형성되고, 석유가격의 지역적 차별화 현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수조론' 을 반박하는 동아시아 프리미엄

동아시아 프리미엄은 중동산 원유가 아시아 지역과 대서양 연안에 판매되는 가격이 동일하지 않으며, 동아시아지역 판매 가격이 대서양지역인 미국과 유럽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높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 프리미엄이 \$1/bbl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놀랍게도 지난 몇 년간 \$2~5/bbl까지 이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프리미엄은 왜 발생할까? 동아시아 프리미엄 연구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공급원이 대서양 연안처럼 다양하지 못 한데 가장 큰 원인을 찾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서양 연안 국가들은 기존의 공급원인 중동, 북해, 남미 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공화국들, 서부아프리카를 신규 공급원으로 추가 개발하여, 공급원들 간 석유판매 경쟁이 가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동의 공급 주도권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85년 일본의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는 64.7%였지만, 2000년 중동의존도는 79.4%로 확대되었다. 즉, 중동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독점적 공급 지위가 동아시아 프리미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설명된다.

중동 산유국의 판매정책도 동아시아 프리미엄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다. 중동, 구체적으로는 걸프만 연안국가들은 전체 원유 수출 물량의 69%를 아시아 지역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는 중동 산유국들이 동아시아 프리미엄을 유지함으로써, 전체적인 석유 판매수입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기간계약 판매에 있어 최종 행선지(final destination) 제약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는 대서양 연안으로 팔려나간 물량이 가격이 비싼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매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행선지 제약 조건이 없어 제 3자 전매가 이뤄질 경우, 사우디의 시장 장악 능력은 약화될 것이다.

동아시아 국내 석유시장 구조가 프리미엄의 존재를 도와주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영국의 폴 호스넬(Paul Horsnell)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 국내석유 시장은 제품가격과 석유수입이 통제되어 정유회사들에게 이윤을 보장해 주는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유회사들이 국제원유가격에 둔감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편다. 이는 동아시아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이유의 일부가 동아시아 지역 원유구매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일본 학자들은 동아시아 프리미엄이 동아시아 원유거래의 기준이 되는 지표원유(marker crude)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 지역의 지표 원유는 두바이유와 오만유이다. 그런데, 두바이유는 지난 5년간 지표 원유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유량이 일일 약 20만배럴에 불과하여, 쉽게 가격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두바이유 시장의 참여자들이 아시아계가 아닌 주로 유럽 및 미국계인 결과, 아시아 지역의 수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이런 결점을 갖고 있는 지표 원유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중동산 원유 가격은 문제가 있으며, 지표원유의 변경이 동아시아 프리미엄 해

결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소가 마사요시(曹我正美) 같은 이는 지표원유를 두바이/오만유에서 차라리 유럽산 혹은 미국산 원유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동아시아 프리미엄

동아시아 프리미엄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각도 있다. '수조론'을 주창한 애덜만교수에 의하면, 아시아지역 원유구매자들은 동아시아 프리미엄이 일시적인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동의 가격 차별 정책이 사라질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지역의 가격 변화가 여타 지역 가격 변화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동아시아 프리미엄 일시론'에 기초한 낙관론은 이론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근거가 약하다. '일시론'은 지난 10년간의 동아시아 프리미엄 존재를 설명하지 못 한다. 사실 이 '일시론'은 '95년에 제기되었는데, 7년이 지난 오늘날 동아시아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그 변동 폭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이 일시적이라면, 또 다시 프리미엄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프리미엄은 '수조론자'들이 주장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낙관적으로 볼 사안아 아니다.

동아시아 프리미엄은 우리경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석유시장은 이미 개

방되어, 석유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호스넬의 예상처럼, 정유산업의 이익마진(profit margin)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 하에서, 원유구매자들은 좀더 탄력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원가 절감을 위해 값싼 원유를 조달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동아시아 프리미엄의 존재는 일종의 불합리한 '국부의 이전(transfer of national wealth)' 과도 관련있다. 불합리한 국제원유가격은 석유제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 등 석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연료 및 원료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는 생산요소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과도 상관있다.

**동아시아 프리미엄은 우리경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석유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석유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호스넬의 예상처럼, 정유산업의 이익마진(profit margin)이 줄어들 것이다.**

동아시아 프리미엄이 우리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경제는

국제석유시장에서 시장 순응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아직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제석유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가격 수용자(price taker)적 입장이지, 국제원유가격에 우리도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은 강력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인식이 동아시아 프리미엄에 대한 국내의 빈약한 관심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프리미엄 문제가 국내의 다양한 국제석유시장 참여자의 이익과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우리의 이익이 걸린 문제를 타인의 손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관심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